

##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며 성경의 핵심적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 곧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와 신적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 외아들은 그의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외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아들은 그 분 하나뿐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이 풍성하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항상 첫 번째로 꼽히는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였습니다(마 16:16). 마가는 신약의 두 번째 책의 첫 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썼습니다(막 1:1).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베드로 다음으로 예수님의 측근자였던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하였고(요일 1:1),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증거하였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30-31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셋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마셨다면, 그의 모든 주장과 아마 그의 기적들의 증거들까지도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 본질을 가지신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와의 교제를 통해 그의 인격적 감화를 느꼈던 자들의 증언들을 통해, 또 그의 제자들이 증거한 그의 많은 기적들을 통해,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확신하십시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부수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8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전통본문)고 말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7:18; 20:21).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갈 4:4).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자기 독생자를 많은 사람들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였습니다(요일 4:10). ‘화목제’는 ‘유화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한 속죄제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0:28).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목적은,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끝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요 20:30-31).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멸망, 곧 지옥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요일 4:9).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17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

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갈 4:4-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동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동기는 그가 세상에 사는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기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롬 5:8).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의 계명을 거역하여 그와 원수가 되었고 그의 진노를 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또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요일 4:9-10). 그의 말과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희생적으로 사랑한 적이 별로 없었고 더더욱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적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 별로 사랑스럽지도 귀하지도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아십니까? 그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임을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진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